학번: 21800201 이름: 김현욱 분반: 02 (시편 73-150, 전도서, 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시편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감격함이 크다고 생각이 들었다.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주시는 것 같다. 주변의 친구들과 간증 거리를 나누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뭐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정작 돌아보니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인격, 인간의 인격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았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자면,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에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어찌 표현할 방도를 모르고, 그저 영광 올려 드리기 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새로운 관점이었다.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의 정상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보내기도 하지만 신앙의 골짜기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갈망해야 함을 알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듯한다. 하지만 시편에서 본 다윗의 찬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쁘고 행복한 순간처럼 느껴졌다.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끝없이 높이는 모습.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 방법과 다른 말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느끼며, 주님이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과 간증을 통해 나오는 진심의 고백,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는 것이 아닌 인간의 심령과 마음이 가난한 것. 또 이 모든 것을 고백하려면 자신의 육신과 세상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리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내가 이렇게 모든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 못했지만 시편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진심으로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표현하고 있었음을 느꼈다.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또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보고 또 배울 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작성된 이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서 옛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했고,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전도서 3장, 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사시사철로 나무들이 때에 따라 꽃을 피고 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한 인간의 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또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아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함을 기도제목으로 삼게 되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구절들로 가득 찬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이 사과를 따먹고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듯한 분위기의 모습이 머리 속에서 상상이 되었다. 아가서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어떻게 보면 남녀 둘 사이의 사랑을 나타내며 상대방에 대한 아름다운 비유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가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궁금해서 관련 해석글을 읽어보았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그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로 해석을 하고 또한 찬양과 찬미의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장이라고 본다는 것이었다.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학번: 21800201 이름: 김현욱 분반: 02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이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언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거짓 예언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표현을 한다. 타락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현재 세계에 빗대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메시지이며 우리가 노력해야할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다니엘 선지자가 느브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심을 잃지 않고 지켰낸 사람이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왕에게 해석을 해주지만 고관들이 이에 질투를 느끼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의 안위를 지켜주신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도 있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내가 엄청난 빚을 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과 굳건함을 다니엘 서를 계속 읽으면서 배워야할 것 같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정말 창피한 말이지만 저는 베들레햄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이번에 처음 읽게 되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있다고 들은 적은 많았지만 사실 이렇게 두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 예수님의 탄생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이 들었고 예언 성취를 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감사하고, 감격할 수 밖에 없었다.

니느웨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거역하는 이들에게 엄격하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었다. “여호화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악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유다의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또 이에 엄중한 벌과 전쟁으로 이끄시고, 응답하신다. 여호와를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내가 항상 올려드리는 기도 중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의 표현을 빌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민족에 대한 선포를 하신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예언서를 읽다 보니 공통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 대적하고 또 악을 행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벌을 내릴 실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만 하더라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현재 이 말씀을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그 당시의 민족들에게만 국한하면 안 된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예언서를 거의 처음 접하다시피 읽게 되었다. 사실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는 못했다.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시대의 민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을 받아드렸는지 많은 공감을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솔직히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다. 어렸을 적 동방박사들이 별동별이 떨어지는 곳에 가니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계셨다. 이런 식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에서 그쳤지 성경에서 어느 구절이 하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갈망이 너무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